

“광주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반드시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 5·18민주묘지 참배

함께 사는 세상·5·18 정신' 강조

박인배·양창근·김명숙 열사 참배

유가족 위로...헌화·분향 뉘 거러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열사 묘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함께 사는 세상’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 같이 적었다.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검은 재킷·치마 차림의 김혜경 여사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오월 공법 3단체(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등과 함께 5·18민주항쟁추모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으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후 북념으로 예를 표한 이 대통령은 고(故) 박인배 열사의 묘역을 찾았다.

1962년 9월20일에 태어난 박 열사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서울에 올라가 ‘자개 기술’을 배웠고, 광주에 내려와 1980년 4월부터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공이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21일 그는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계엄군의 총격에 의해 숨졌는데 사물 뒤에야 시신이 수습됐다.

이경철 국립5·18민주묘지소장으로 부터 박 열사의 생애를 전해 듣다가 함께한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이들의 손을 잡으며 위

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故) 양창근 열사의 묘역을 찾았다. 양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존 인물인 고(故)

문재학 열사와 친구 사이였다.

5월19일 휴교 조치로 학교에서 하교한 뒤 시위대에 합류한 양 열사는 이를 후 송암동에서 총상을 입고 1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양 열사의 죽음 후 문 열사는 시민수습대책위원회 활동에 뛰어들었고, 전남도청을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

양 열사는 무명 열사 묘역에 묻혀 있었다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신원이 확인됐다. 그러나 작게 가족이 모두 사망한 탓에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참배 후 참석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양 열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의 마지막 희생자로 알려진 고(故) 김명숙 열사의 묘역을 참배했다. 항쟁 마지막 날인 1980년 5월27일 늦은 오후에 전남대학교 정문을 지나던 김 열사는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당시 김 열사의 나이는 14세였다.

이날 이 대통령의 참배에 대해 국립5·18 민주묘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찾아와 참배해 주는 것 자체가 동행한 유가족 분들께게도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방문 등으로 국민적 관심 또한 높아져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도 힘이 더 실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5·18 최후 항쟁지’ 시민 품으로...옛 전남도청 개관

1980년 5월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오후 2시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을 정식 개관하고 시민에게 개방했다. 〈사진〉 옛 전남도청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집결지이자,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학생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다가 산화하거나 불합격한 역사적 현장이다.

또 민주화 요구 대성회가 도청 앞 광장 분수대를 중심으로 열리기도 했다.

원형 복원 공사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다. 지난 2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임시 개관 기간 동안 9만5천여명이 다녀갔다.

정식 운영 시간은 임시 개관 때와 같이 매주 화·일요일이고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해설 화차는 임시 개관 당시보다 줄었다. 임시 개관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30분 간격으로 2회, 오후 1시부터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8회 등 하루 총 10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정식 개관 이후에는 평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3시·4시 등 4회, 휴일에는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2시·3시·4시 등 5회로 축소 운영된다.

회차당 최대 20명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단체 관람이 추가될 경우 별도 해설사가 투입된다.

2년5개월 복원 마무리 정식 운영

임시 개관 당시 지적 내용 보완

상무관·추모공간 신규 공개 눈길

8월17일까지 기증 특별전도 선보



해설사는 총 5명이다.

시범 운영 기간 지적돼 왔던 일부 전시 내용은 수정됐다.

먼저 도청 본관 입구 오른쪽 등에 게시된 설명 명 속 ‘시민들은 전남도청을 장악했다’는 표현이 사라졌다.

도청 본관 1층 ‘열혈간의 항쟁’ 전시물에서는 임시 개관 당시 1980년 5월24일 11공수여단에 의해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5·18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자 수가 9명으로 수정됐다.

전남도경찰국 전시물에 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시기도 1980년 9월1일 제11대 대통령 취임과 1981년 제12대 대통령 취임으로 나눠 정리됐다.

시범 운영 당시 콘텐츠 준비 중이었던 상무관과 도경찰국 민원실도 새롭게 공개됐다.

5·18 당시 희생자들의 시신이 임시 안치됐던 상무관에는 국화 등으로 빈소를 꾸민 추모 공간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추모 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다.

도경찰국 민원실에서는 오는 8월17일까지 개관 기념 기증 특별전 ‘5·18 광주, 끝나지 않은 시간’이 열린다. 전시에서는 당시 계엄 경교문, 국내의 보도 신문, 취재 메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서울에서 광주를 찾은 직장인 양운진(30·여)씨는 “5·18을 맞아 친구들과 기념식을 보고 전일빌딩에 이어 옛 전남도청에 왔다”며 “생생하게 재현된 당시 현장을 보니 5·18이 광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신가중학교 2학년 김다연양은 “광주에 살고 교과서에서도 배웠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세대의 이야기라고 느끼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규명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방문객은 7천11명으로 집계됐다. /이연상 기자

하나 된 ‘통합특별시 미래’ 올렸다

5·18민주광장서 ‘민주의 종’ 33회 타종

광주시는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18일 오후 5시18분 5·18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 타종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최승복 광주시 부교육감, 황성환 전남도 부교육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 5·18 기관·단체장 등이 함께 했다.

올해 타종식은 1980년 5월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연대의 역사를 계승하고 7월1일 공식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을 기원하는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 기획됐다.

이들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아 오후 5시18분 종각에 맞춰 ‘민주의 종’을 총 33회 타종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와 전남은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 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남은 과제를 풀기 위해 앞으로도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 5·18 기관·단체장 등이 5·18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18일 오후 5시18분 5·18민주광장 내 민주의 종각에서 민주의 종을 타종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5·18민주화운동 제46주년을 맞아 18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금남로 거리와 국립5·18민주묘지 등에서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이들의 희생을 추모했다.

◇‘열린기념식’ 금남로 수백명 ‘운집’ 기념식이 열리기 약 1시간 전부터 5·18민주광장과 인접한 금남로 일대는 대형 LED 화면으로 중계 영상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한 추모객들로 북적였다.

차량 통행이 통제된 편도 5차선 도로 양 끝의 가로수 아래 있어도 땀이 절로 나는 초여름 날씨였지만, 이들은 중계 화면과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 눈과 귀를 집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자 금남로 거리 곳곳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기념식을 보기 위해 대구에서 왔다는 황모(41)씨는 “5·18은 광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역사”라며 “헌법 전문 수록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에서 온 이현남(82·여)씨도 “예전 도청 앞 기념식 분위기를 다시 느끼게 됐다”며 “시민들과 함께하니 더 울컥했다”고 말했다.

◇‘개헌 무산’ 장동혁국힘 대표 질타 쏟아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기념식장 안팎에서 최근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항의를 받기도 했다.

고(故) 문재학 열사의 어머니인 김길자 여사는 장 대표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오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다른 시민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가 비상계엄으로 탈당했다”며 “(오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이 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특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때 장 대표는 다른 정당의 대표들과 달리 홀로 ‘차렷 자세’를 유지해 눈총을 사기도 했다.

제46주년 5·18이모저모

기념식이 끝난 뒤 민주광장을 빠져나갈 때 장 대표는 다수의 취재진으로부터 개헌안 표결 불참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을 받았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보수 유튜브버안 무대용 ‘시민의식’ 빛나 기념식 중 행사장 바깥에서 일부 보수 유튜브와 참가자들이 이 대통령을 기념사를 낭독할 때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LED 화면으로 중계 영상에 집중하던 추모객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별다른 제지에 나서지 않고 ‘무대용’으로 일관했다. 덕분에 올해 기념식은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던 예년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금남로에서 기념식을 지켜본 박진형(58)씨는

“(시민들이) 지적하고 제지하는 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별다른 마찰 없이 조용히 지나간 것도 광주시민의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도보 참배’ 전통 한빛고 ‘오월의 시’ 낭독 담양 한빛고등학교 학생 20명은 이날 기념공연 무대에 올라 김남수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일부를 함께 낭독했다.

한빛고는 5월이 되면 전교생이 학교에서부터 도보로 민주묘지까지 이동해 참배하는 전통을 올해로 29년째 이어오고 있다.

무대에 오른 학생 중 4명은 5·18기획단 소속으로 이들은 도보 참배 외에도 자체 추모 행사를 기획하며 진행하고 있다.

기획단 소속 1학년 배아성군은 “직접 걸어 참배하고 열사들을 마주하면서 5·18이 옛날 세대의 일이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월

의 역사가 지금 우리와도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2학년 양지훈군은 “기념식 무대에 직접 서 보니 지금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할 역사라는 걸 더 실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산 자를 구한 영령’ 민주묘지 참배 행렬 이날 국립5·18민주묘지는 이른 오전부터 오월 영령의 유가족 등이 찾아와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후문을 지켰다는 조충현(88)씨는 “상무관에 놓인 주검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다”며 “계엄군에 의해 다쳐지만 목숨을 바친 열사들에게 죄스러운 유공자 신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에서 온 최정호(66)씨는 “광주 출신인 친구 덕에 이들의 희생과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알게 됐다”며 “이들이 한 몸 바쳐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켜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다. 오월 영령이라 부르고 추모하며 기억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형우·윤찬웅·이연상 기자